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8월 12일 (제96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죄의 변호사

누구나 살다보면 죄를 짓는다.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인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살기란 정말 쉽지 않다.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죄에 대해 통탄하며, 죄와 투쟁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다. 변호사가 무엇인가? 죄를 대변해주는 것 아닌가. 죄를 대변하다 보면 핑계와 변명이 따르기 마련이다.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그랬다 등등.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모든 사람과 육축까지 죽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사울은 아각을 사로잡고 양과 소 가운데 좋은 것을 죽이지 않았다. 이를 알게 된 사무엘이 책망하자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양과 소를 가져왔다고 변명했다. 또 사무엘 제사장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하는 말, "백성은 나에게서 흠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므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삼상13:11~12).

죄에 대해 변호사가 되지 말라. 그것이 죄보다 더 큰 죄요, 그것으로 인해 죄를 사함 받지 못하게 된다. 죄는 짓지 않은 것이 좋으나 지었거든 무조건 회개해야 한다. 우리의 죄를 범함 다투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앞에서 부복하고 눈물로 회개한 것처럼,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 앞에서 변명하지 않은 것처럼.

회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인생의 맛은 부지런함에서 온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청소년이 되자'는 기치 아래 2018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8월 6일부터 2박 3일 동안 장성 에루살렘기도원에서 진행되었다.

베트남 집회로 인해 총회장 목사님의 영상을 준비했던 교육부는 베트남 집회가 연기되자 자신들의 기도응답이라며 총회장 목사님께 주장사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목사님은 2주간의 산성집회로 인해 피로하셨을 텐데도 흔쾌히 이를 수락하시어 연합수련회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되었다.

이시대 목사님의 개회예배로 시작된 연합수련회는 성경봉독과 기도, 그리고 경배와 찬양으로 이어졌다. 9시, 단에 오르신 목사님은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 인생의 맛은 부지런함에서 온다.'는 제목의

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잔디가 푸르러 보인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 내가 신바람 나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단점에 매몰되어 시간 낭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장점을 개발한 자들이다. 그들은 그 분야에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인물을 롤모델로 삼고 그들을 모방하려고 노력했다. 자고로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잠13:20). 엘리야를 모방한 엘리사가 그 샘플이다. 학벌의 시대는 가고, 지금은 능력위주의 시대다. 그런데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는 법, 자신의 적성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자기의 적성을 찾았으면 부지런히

관이 된다.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마치 빛과 어둠처럼 극과 극의 결과를 낳는다고 잠언서에 나와 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잠10:4),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잠12:24),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잠12:27),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잠13:4)...

지금 부지런히 공부하라. 지금 부지런히 배워라. 지금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겨라. 지금 부지런히 너의 달란트를 찾아라. 오



제22회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2018년 8월 6일 ~ 8일, 장성 에루살렘기도원)

로 말씀을 전하셨다.

"하나님은 밑바닥 인생을 살라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살라고 보내신 것도 아니다. 특별하게,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살라고 기대하시며 보내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멋지고 맛있는 인생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는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조건이 있다.

첫째, 자기 것을 찾아야 한다. 누구나 남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 인생은 선택과 집중이다. 선택했으면 모든 것을 그것에 쏟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할 것은 배움이다. 배움은 최고의 자본금이기 때문이다. 자본금이 많을수록 일을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배움이 목적은 아니다. 목적에 이르는 징검다리요 사다리다. 건너지 못할 곳을 건너게 하고, 오르지 못할 곳을 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배움이다. 지금은 부지런히 배울 때다. 지금 의식적으로 부지런히 공부하고 배우면 그것이 무의식으로 몸에 배어 습

늘 게으름을 이 기도원에 묻고 가라.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이 멋있고 맛있게 전개될 것이다."

이 연합수련회에 참석한 자 중에 한 사람만 변화되어도 그로 인해 한 가정, 한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다. 부디 이 수련회를 통해 그 한 사람이 배출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

끝으로 이 수련회에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성령세례



경배와 찬양



미션 서바이벌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4:1~22)



예수 이름을 왜 가르치지 못하게 하나?

예수의 부활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에게 잡혀 옥에 갇혔습니다(행4). 이 일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는데, 이날 대제사장을 포함한 그들 문중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행4:18).

‘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명한 표적’ 때문이었습니다(행4:16).

‘유명한 표적’이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앓은뱅이를 일으켜 걷게 한 사건입니다(행3).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자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난감해졌고, 한편 시기가 발동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행4:7).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합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행4:8~10). 바로 ‘예수 이름’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물 떠난 고기는 벌레 밥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무엇기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요?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마1:21).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 중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요17:11)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의 이름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이름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삼위일체(三位一體)이심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소유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니(마28:18), 예수 이름 앞에 하

늘의 것과 땅의 것, 그리고 땅 아래의 것들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빌2:9~10). 예수의 이름이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인간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도 바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행4:12).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고, 그의 제자들에게 “도무지 예수의



총회장 이초석 목사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요5:43).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은 그 시대, 그들만이 소유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1:12),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부여주심으로 권능을 받게 하십니다(행1:8).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7~18)는 말씀을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은 자는 베드로 및 사도들이 행했던 ‘유명한 표적’과 동일하게 ‘이런 표적’,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앓은 뱀이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은 이초석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저의 전매특허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나 제가 받은 성령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자들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 ‘이단’이라 정죄하고, 잘못되었으니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대역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난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난을 쫓아 버리십시오. 병들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병들게 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것 역시 예수 이름이면 해결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바울이 점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 쫓은 것과 같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린 것처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장식품으로 만들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사업을 명령하세요. 다시 불일 듯 일어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세상의 머리가 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가족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식물이 시들시들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과묵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암행어사라는 관리가 있었음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암행어사가 왜 권세가 있었습니까? 이는 왕의 이름으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민 마패가 왕이 보냈음을, 왕의 권세를 지냈음을 입증했기에 지방 관리들이 암행어사를 보면 낯작 앞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행정목사를 기도원에 보냈다고 합시다. 그가 가서 이런저런 것을 지시하면 그들은 행정목사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제 이름을 가지고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권세를 예수께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기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큰 것입니다. 이성계가 이방원에게 물려준 것이 이성계라는 이름이 아니라 왕(王)이라는 이름을 물려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천상천하에 가장 좋은 이름은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 이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것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세요.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듯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것들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주머니에 있을 때는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돈을 사용할 때 돈의 권세가 나타나듯, 예수 이름을 소유만 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인수해야 예수 이름이 나가서 여러분이 구한 것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요14:13).

배움의 끝은 실천이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가난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난을 쫓아 버리십시오. 병들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병들게 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것 역시 예수 이름이면 해결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바울이 점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 쫓은 것과 같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린 것처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장식품으로 만들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사업을 명령하세요. 다시 불일 듯 일어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세상의 머리가 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가족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식물이 시들시들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과묵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 객원칼럼 ::

:: 거저씨만한 믿음 ::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하자

우리나라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질투하며 시기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제가 운동을 하기 위하여 자주 찾는 하천 주변에 어린이들 교육을 위하여 위인들의 벽화를 그려 놓았는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남의 나라의 대통령과 기업가, 그리고 자선봉사자들의 사진이 붙어있었고, 우리나라의 위인들은 오랜 전의 장군이나 학자 선비들의 사진만 붙어있었습니다. “외국의 위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면 과연 위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나라를 세우고, 경제 개발을 통하여 대물림하던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경제대국을 이루어낸 대통령과 기업인들, 그리고 민주화를 위하여 일생을 바친 대통령도 있으며, 교계와 학계 다 방면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로보다 과실을 침소봉대하여 오히려 몹쓸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 풍토는 분명히 버려야 할 국민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풍토를 게 바꾸니와 같은 사회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 바꾸는 한 마리의 게가 있을 때에는 뚜껑이 필요한데, 두 마리 이상이면 뚜껑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바깥으로 탈출하려고 하면 기어코 밑에 있는 게가 올라가는 게의 다리를 물고 늘어져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미국사회

에서 유대민족이 가장 두려워하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워낙에 부지런해서 밤잠도 자지 않고 일을 하니 당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그 동네에 이사를 오면 유대인들은 미련 없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종의 우리나라 사업장이 하나 더 이사를 오면 떠났던 유대인이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며 물고 뜯으며 싸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약된 이야기지만 현실을 목도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에 허물이 없고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3:10)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이나 SNS 등을 통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들추어내어 그 사람을 매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며 진정으로 버려야 할 ‘적폐’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고상한 지식처럼 느껴지고 자신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그런 행동들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돌을 던지는 것보다 장점을 보고 박수를 보내며 배워나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부끄러운 구원

이번 월드컵의 스타는 누가 뭐래도 조현우 골키퍼일 것이다. 조현우 선수는 교인이다. 그는 항상 기도하고 경기를 나가며 경기하면서 주님을 외친다고 한다. 조현우의 신실함은 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다시 봤다고도 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행동은 영광으로 하면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하늘의 일만 있고 땅의 일은 없거나 땅의 일만 있고 하늘의 일은 없는 것 모두 불완전하다. 땅에서도 증거가 있고 하늘에서도 증거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서는 불신자들을 믿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려 귀

신을 쫓고 병을 고치시는 등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 표적이 없으면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아무 것도 하지 않으시고 단지 말로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베드로가 형제인 안드레를 통하여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았다. 다시 고기잡이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신자들이 보기에 ‘교인이라 뭐가 달라도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게 노력하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남 보기 부끄럽게 행동한다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김성일 형제
cre8tor@naver.com



:: 신앙논객 ::

:: 생명의 말씀 ::

지극히 작은 돌멩이 하나

이번 하계산상집회 기간 중에 교육전도사들은 쓰레기 분리수거 봉사를 했다. 그날도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하는데, 오른발 가운데 쪽이 따끔따끔하고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장화를 벗고 뒤집어 털은 뒤에 다시 신고 걸어봤지만 발에 느껴지는 이물감은 여전했다. 그 때문에 작업하는 내내 다른 때보다 몇 배는 더 땀이 나고 체력소모가 컸다. 나중에 숙소에 돌아와 양말을 벗어보니,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가 발에 붙어 있는 게 아닌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 놈 때문에 내가 작업하는 내내 그렇게 힘들었다니... 그걸 떼어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될 텐데!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열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잠25:13). 충성된 일꾼은 요즘같이 무더운 날씨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열음냉수와 같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그런데 주인의 속을 시원하게 하지는 못할망정, 주인의 마음과 거동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치는 돌 같은 자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가 꼭 엄청난 실수나 커다란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것이 아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

마디, 순간적으로 짓는 표정 하나가 그를 주인에게 불편한 존재로 만든다. 마치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장화와 양말 속에 끼여 발을 아프게 하는 지극히 작은 돌멩이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각 지체를 이루는 주님의 몸이기에, 지극히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손톱이나 발톱 같은 한 지체가 잘못 어긋나면 그 하나로 인해 온 몸이 아프고 피곤해진다. 말단 직원 한 명 잘못 써서 회사가 망한 사례가 부지기수다. 또 무심코 던진 농담 한 마디가 몇 십 년 쌓아왔던 부와 명예를 순식간에 무너뜨린다. 나를 부르고 택하신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데 있어서 지극히 작은 돌멩이처럼 방해되는 요소는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행하는 죄, 무심코 던지는 말 한 마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표정 또는 태도가 하나님의 오른발, 아니 온 몸과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눅16:10).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따뜻한 칭찬과 격려

인류학에는 미개인과 문명인을 언어로 구분하기도 한다. 구사할 수 있는 어휘가 5백 단어 미만이면 미개인이라고 하고, 3천 단어 이상이면 시민, 3만 단어 이상 구사할 수 있으면 소위 지성인이라고 일컫는다. 단어의 개념이 명확하고 언어구사 능력의 폭이 넓을 때 그만큼 폭넓은 생각과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말은 너무 중요하다. 말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사상이요, 말이 입을 통해 전달되면 언어다. 말이 고정되면 뜻이요, 말이 행동으로 표출되면 행위가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언어가 곧 인격이요, 신앙이다. 그리스도인의 사상은 살리는 데 있다. 영적인 문제 뿐 아니라 혼적인 정신세계, 그리고 병든 육체도 살리는데 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잠18:21)고 하였고,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잠12:18)고 하셨다. 뉴욕의 신앙심이 돈독한 한 사업가가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다. 그는 플랫폼에서 구걸을 하며 볼펜을 팔고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는 1달러를 그 남자의 컵

속에 떨어뜨려주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서둘러 발길을 옮겼다. 지하철 앞선 사업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구걸하는 남자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걸인의 컵에서 몇 자루의 볼펜을 뽑아 들면서 자기가 조금 전에 가져가는 것을 잊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그는 “나나 당신이나 사업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연필을 가져가는 것이 공정한 거래라는 것을 이해하시죠?”라고 말하고 갈 길을 갔다. 몇 달 후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은 세일즈맨이 그 사업가를 찾아와서 자신을 소개한다. “당신은 아마도 저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자긍심이란 것을 다시 찾아준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업가라고 불러주시기 전까지 나는 길에서 돈을 구걸하며 볼펜을 파는 거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한마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며 감사의 인사를 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따뜻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한다. 임택환 목사
cjcc1004@hanmail.net

깨진 그릇

도미노피자를 아시나요? 작년 글로벌 매출액이 109억 달러(한화 약12조3천억)에 달하는 이 기업의 창업주는 톰 모너건(Tom Monaghan)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이 참 불우했습니다. 4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6세에 고아원으로 보내졌지요. 고아원에서 톰은 아주 포악했다고 합니다. 걸핏하면 친구들과 싸웠고,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했으며, 당연히 입학도 실패했습니다. 모든 이가 기피하던 그에게 한 수녀님이 다가와 그를 보듬어 안으며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너를 놓지 않는단다. 너를 사랑한다.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라.”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은 그는 그때부터 깨진 그릇 같은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보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셨고, 결국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금수저를 논하며 모든 환경과 상황이 완전히 구비되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연약함, 부족함, 상처들이 다 성공하지 못하는 원인

이라며 책임을 넘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고전1:27~29),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늘 세상을 바꾸어 오셨습니다.

형이 두려워 가족들 뒤에 숨던 연약한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니 하나님의 인정은 물론이요 원수 되었던 형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가족의 평화를 지켜냈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전력과 육체의 가시를 가진 흠 많은 바울도 하나님을 담으니 위대한 사도가 되었으며, 핏기로 사람의 귀를 베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과거로 깨져 버린 베드로의 심령도 부활하신 예수의 사랑이 부어지니 이스라엘 민족을 전도하는 수장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금이 가고 깨어진 물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은 늘 우물가에서 이 깨진 그릇에 물을 담아 왔지만 막상 집에 오면 물이 세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깨진 그릇은 늘 주인에게 미안했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해 주인님께 폐만 끼치는구

나. 나로 인해 그토록 힘들게 구한 물이 다 새버리니...’

어느 날, 깨진 그릇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고 온전한 새 그릇을 구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별로 가치가 없는데요.”

그의 물음에 주인은 깨진 그릇을 데리고 나가 항상 지나오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야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아라.”

그제야 깨진 그릇은 그들이 늘 물을 길어 걸어오던 길을 보았습니다. 메마른 길가에는 깨진 그릇 틈 사이로 새어 나온 물을 먹고 아름답게 피어 오른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며 싱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연약한 자입니까? 깨진 그릇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이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담아내기만 한다면 당신 안에서 새나오는 은혜의 물줄기로 주변의 메마른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하인명 집사
renming@daum.net

지혜를 구하는 민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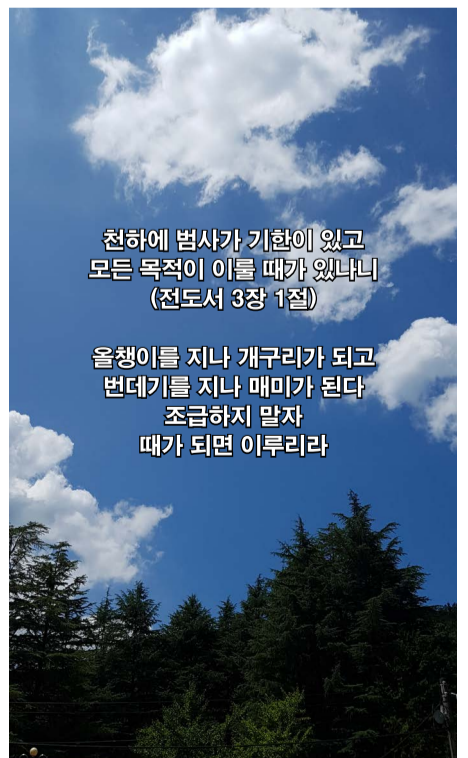
20세기 이후에 가장 주목받는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세계 인구의 0.2%, 1,4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유대인들은 수 천년동안 온갖 박해와 인종말살의 위협 속에서도 곳곳이 생존했을 뿐 아니라 조상의 땅으로 돌아와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작은 민족이 세계사에서 이룩한 성과는 기적 그 자체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5%, 미국 대학교수의 25%, 상하원의원의 20%, 월가금융전문가의 35%, 뉴욕 중고등학교 교사의 50%, 미국 70만 변호사의 20%, 미국 최상위부자 40명 중 22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극심한 고난의 역사를 딛고 일어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업적을 쌓으며 승승장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민족입니다. 금은보화를 얻기 위해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기 위해 금은보화까지도 기꺼이 던져 버리는 민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최대한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위해 진주를 버리면 지혜와 더불어 진주까지 얻게 된다는 진리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람을 두고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장수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부귀영화와 장수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잠3:15). 이것이 유대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비결입니다.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올챙이를 지나 개구리가 되고 번데기를 지나 매미가 된다 조금하지 말자 때가 되면 이루어라

난독증과 총명탕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난독증(dyslexia)은 글을 유창하게 읽지 못하고 철자를 정확히 쓰기 힘들어 하는 학습장애의 한 유형으로 읽기장애라고도 한다. 좁은 의미의 난독증은 글을 잘 못 읽는 경우를 말하지만, 넓은 의미의 난독증에는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읽기의 속도가 많이 느린 경우도 다 포함된다.

우리 아이가 지능, 즉 IQ는 정상이고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이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 올라가서 책을 보는 것을 힘들어 하고, 여러 차례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 알림장을 잘 적어오지 않거나, 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난독증을 의심할 수가 있다.

난독증이 있는 초등학교 학생은 책을 보기를 싫어하거나, 책을 보면 눈이 아프거나, 책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말로 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잘 할 수 있음에도 책으로 설명하면 어려워하기도 한다. 심하면 글자를 읽을 때 단어를 빠뜨리거나, 줄이 바뀌기도 한다.

중, 고등학생 중에 난독증이 있게 되면, 글을 읽기는 읽지만,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이해력이 부족하여 한 페이지의 내용을 대부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 공부를 하더라도 성과가 적다.

난독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운인식능력(단어의 소리 구조에 대한 인식)의 부족함으로 보고 있으며, 약물 치료법은 없으나 언어치료와 특수교육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된다. 이러한 난독증에 좋은 건강식품과 총명차에는 어

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머리를 좋게 만드는 식품으로 참깨가 있으며, 참깨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레시틴이 함유되어 건뇌(健腦)작용이 있고, 비타민 E는 뇌의 노화를 억제하여 학습능력을 향상시켜준다. 호두와 잣은 레시틴이 풍부하여 기억력을 증진시키며, 콩, 다시마, 미역등도 도움이 된다. DHA는 두뇌 기능을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영양소로서, 뇌세포 구성 성분으로 알려진 레시틴을 만들어낸다.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두뇌활동을 민첩하게 하도록 도와준다. 고등어와 정어리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고, 멸치나 뱀어포와 같은 뼈째 먹는 생선에도 풍부하다. 주위가 산만한 아이들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효능도 있다.

총명차로서는 첫째로 석창포와 원지가 사용이 되는데, 석창포는 예로부터 단오 때 창포물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풍습이 있었을 정도로 정신을 맑게 하며, 두뇌 활동을 좋게 하는 명약이다. 원지는 ‘뜻을 오래 기억한다’는 뜻을 가진 약재로, 그 이름처럼 기억력 증진과 건망증 치료에 좋은 약재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멎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고 흐리지 않게 한다. 두 약재를 각각 10g에 물500~600cc를 넣고 20여분 이상 끓여서 하루에 수시로 3개월 이상 복용하면 학습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책을 많이 읽어야 하거나, 책의 내용이 어려워 이해가 부족한 난독증 아이들에게 꾸준히 복용을 시키게 되면, 두뇌의 언어중추가 좀 더 활발해지게 되어 언어의 이해력과 표현력이 차

츄 증진하게 되며, 수험생들이 책을 오래 읽는데 덜 피곤하여 학습능력이 증진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오미자는 두뇌를 각성시켜주고, 비타민이 풍부하여 피로를 풀어주면서 시력과 기억력을 증진시켜 준다. 오미자 10g을 찬물 300~400cc에 30분 이상 담갔다가 빼서 꿀을 조금 가미하여 마시게 되면, 더운 여름 맑은 정신으로 학습을 하거나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로 책을 읽는데 눈이 많이 피로하거나 눈이 건조하여 책을 오래 읽지 못하는 경우 구기자차를 마시게 되면, 비타민 C가 레몬보다 21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로를 개선시켜주며, 기억력 증진 및 눈을 맑고 밝게 해준다. 구기자 10g을 물 500~600cc에 넣고 20여분 끓여서 하루에 여러 번 나누어 마시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긴장이 많이 되어 책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산조인 10g을 물 500~600cc에 넣고 끓여서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수면의 질이 호전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증진된다.

난독증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족한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달란트로 받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점에 매몰되지 말고 장점에 주력하는 자가 성공에 이를 수 있다.”

Dr. 설재현 집사
kseolmed@hanmail.net